

濟州島 巫俗의 祭物과 神

玄 容 駿*

I

濟州島 巫俗의 神들의 성격을 살피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될 것에 神과 祭物의 문제가 있다. 巫儀를 행하는데 어떤 종류의 祭物들이 올려지며, 그 祭物의 다름에 따라 神의 성격은 다름이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祭物의 측면에서 神의 본질을 살펴 나가는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神들은 祭儀의 대상이다. 韓國의 巫儀에 있어 祭物을 神들에게 올려 권하고, 祈求事項을 祝願하는 것은 빼 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이다. 神들도 인간과 같이 먹고 입고 하여 살아 나가는 存在이므로, 축원에 당하여 우선 성대하게 접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祭儀는 神들을 대접하는 의미가 큰 것이다.

神들을 성대하게 대접하는 데는 神들이 즐겨하는 祭物을 마련해야 한다. 그 즐겨하는 祭物이란 그 文化에 있어서 가장 上品의 飲食物로서 소중한 食品으로 간주되어 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 食品은 그 文化의 生産經濟形態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神들의 음식물인 祭物이 文化와 연관되고, 神들의 文化的 特性을 나타내는 근거가 있다.

또 祭物은 保守性이 강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食生活은 西洋料理를 즐겨할 정도로 변화해 가고 있지만, 비이프스테이크나 커피 등을 주요한 祭物로

* 師範大學長, 社會學博士

올릴 만큼 변화하리라고는 좀체로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祭物은 다른 文化要素에 비해 그 變化速度가 느린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祭物이 변화를 거듭해 온 것이라 해도 거기에는 상당히 오랜 관습이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巫儀에 있어서의 祭物을 통하여 그 神과 文化를 살펴 나갈 필요성과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濟州島의 巫儀에는 어떤 종류의 祭物이 쓰이고, 그것이 神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 나가기로 하자.

II

濟州島 巫儀에 쓰이는 祭物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祭物이란 全島的으로 공통되고 또 대부분이 神들의 巫儀에 일반적으로 올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A. 麥 : 白米밥
- B. 穀物類 : 주로 白米를 그릇에 넣어 올리지만, 보리쌀이나 좁쌀을 올리기도 한다. 白米를 上品으로 친다.
- C. 떡類 : 쌀로 만든 시루떡, 돌래떡 등 여러 가지 떡이 쓰인다. 지역에 따라 간혹 메밀로 만든 돌래떡이 쓰이기도 한다.
- D. 生鮮類 : 돔, 옥돔 등을 上品으로 치고, 비늘이 있는 생선이면 무엇이든지 쓰지만,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을 쓴다.
- E. 菜類 : 미역, 콩나물, 고사리, 미나리 등이 주로 쓰인다.
- F. 果實類 : 복숭아를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좋지만, 주로 감귤, 사과, 배, 대추, 비자, 밤 등 三色 또는 五色果를 올린다.
- G. 酒類 : 甘酒 (차좁쌀로 만든 식혜 같은 것), 燒酒, 淸酒 (차좁쌀로 만든) 등.
- H. 물

다음, 특수한 祭物이란 어떤 특정한 神들에게만 올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肉類 : 주로 돼지고기인데, 한 다리를 잡고 삶아서 그 전부를 올리는 데도 있고, 그 일부나 내장의 일부를 올리는 데도 있다. 특히 일반적인 祭物은 안 올리고 돼지 전 마리의 고기와 술만을 올리는 神이 있다.

J. 수수떡·수수범벅 등

이들 祭物과 神들의 관계를 보면, 全島 共通의 一般神, 部落神인 堂神의 일부, 一族守護神인 <조상>의 대부분에는 일반적인 祭物을 올린다. 거기에는 가령 產育神인 <삼승할망>에게는 메(白飯), 白米, 미역채, 물 등을 올리는 것처럼 특성의 것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같다. 한편 堂神의 일부나 <조상>神의 어떤 것(이를테면 영감神)¹⁾에는 특수한 祭物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祭物은 巫儀의 祭物로서 基本的인 것이고, 특수한 祭物은 일반적인 祭物을 올린 위에 어떤 神이 특히 즐겨하는 음식물이라 하여 올리는 특수한 것이다. 前者는 그 재료가 穀類(주로 白米)로 되어 있고, 후자는 돼지고기임이 눈에 띄는 것이다. 결국, 祭物은 米穀類祭物과 肉類祭物로 나누어지는 셈인데, 巫俗社會에는 전자를 <맑은 음식(清潔한 祭物)>, 후자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의 巫神들은 그 祭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米食神>과 <肉食神>으로 나누어지는 셈이 된다. 그러니까 信仰民들은 祭儀를 하려면 어느 神은 <맑은 음식>을 즐겨 먹는 米食神이고, 어느 神은 <부정한 음식>을 즐겨 먹는 <肉食神>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神들의 食性は 그 神의 본풀이 곧 神話에 설명이 되어 있어, 信仰民이 올려야 할 祭物과 그 祭儀方式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본풀이는 그 神이 어떤 음식을 즐겨 먹게 된 내력의 설명을 통하여 그 神의 位階의 上下나 機能 등에까지 설명해 준다. 그러한 본풀이의 事例를 몇 개 보기로 하자.

1) 「영감」이란 도깨비(濟州島方言으로 도깨비) 神을 敬稱한 말이다. 이 神은 도깨비불이 人格화된 것인데, 一族守護神인 <조상>으로 모시기도 하고, 部落神인 堂神으로 모시는 곳도 있다. 이 神은 특히 돼지고기·수수떡·수수범벅·소주 등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1) 舊左邑 金寧里 靑楓堂 本

서울 南山(또는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女神 백주또가 濟州島의 알손당(舊左邑 松堂里)에서 솟아난 소천국을 찾아와 부부가 되어 살았다. 아들 5형제를 낳고 여섯째는 포태 중인 때, 백주또가 남편에게 농사짓기를 권했다. 많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소천국은 부인의 말대로 소에 쟁기를 매워 넓은 밭을 갈기 시작했는데, 배가 고파지자 밭 갈던 자기 소를 잡아 먹고, 이웃 밭에서 풀을 뜯는 남의 소까지 잡아 먹고 겨우 시장기를 면했다. 남의 소까지 잡아 먹은 것은 도둑놈이 아니냐고 다툼이 생겨 소천국은 갈려 나가고 백주또는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세 살이 되자, 아버지에게 데려갔는데, 아들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아버지 수염을 뽀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아버지는 불효의 자식이라고 야단치며 아들을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돌함은 동해용왕국에 표착하고, 아들은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국의 막내딸과 혼인한다. 용국에선 융숭하게 음식상을 차려 대접하지만 이 사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내 국은 소국이라도 돼지도 잡아 전 마리를 먹고, 소도 잡아 전 마리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용왕국에서는 매일 돼지와 소를 잡아 대접하기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식성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용왕은 생각 끝에 사위와 딸을 다시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돌함은 강남천자국에 표착하고, 부부는 강남천자국의 변란을 평정하는 대공을 세운 후,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왔다. 죽으라고 띄워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옴을 안 부모는 웃손당(上松堂)과 알손당(下松堂)으로 각각 도망가 죽어 堂神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金寧里의 堂神이 되려고 이 마을로 내려왔다. 金寧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구 하나 대접해 주는 자가 없었다. 아들神은 마을 사람들에게 갖가지 흥함을 주어 알렸다. 집을 쳐서 소천국 여섯째 아들이 堂神으로 들어섬을 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실 자리를 정하고 물었다. 「무슨 음식을 잡습니까?」「소도 전 마리를 먹고 돼지도 전 마리를 먹는다.」「가난한 백성이 어찌 소를 잡아 위할 수 있습니까? 가가호호에 돼지를 잡아 위하겠습니까.」「어서 그리해라.」이처럼 양해가 되어, <알케네기>에 자리를 골라 제단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돼지를 잡아 물 한 방울도 덜지 아니하고 위하는 신당이 되었다.²⁾

2)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要約,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636-647.

이 본풀이는 케네깃당의 堂神의 系譜와 堂神으로서 모시게 된 내력뿐 아니라, 돼지 전마리를 祭物로 올리게 된 내력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傳承에 의해서 金寧里에서는 1년에 한 번, 가가호호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이 堂神을 위한다. 이를 돛제(豚祭)라 한다. 이 돛제는 堂에서 할 뿐 아니라, 혼인잔치, 大·小祥, 名節 등의 기회에도 돼지를 잡으면 먼저 이 堂神에게 올려 대접한 후에 먹는다. 근래에는 당굿을 못하게 되자, 가가호호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돼지를 잡아 집에서 돛제를 지내고들 있다. 또 여기서는 새끼돼지 때에 이 돼지는 돛제에 쓸 것이라고 지정을 해 두면 그 돼지는 달빛에 털에서 윤이 번질번질 날 정도로 살찌 간다고 한다.

이와 같은 堂神은 舊左邑 細花里에도 있다.

2) 舊左邑 細花里堂 금상님 본

細花里本郷堂에는 천조도, 백주또, 금상님 세 위의 神이 모셔지고 있다. 천조또는 漢擎山 白鹿潭에서 솟아난 神으로 백주또의 외할아버지이고, 금상님은 백주또의 남편이다.

금상님은 본래 서울 南山에서 솟아난 天下名將인데, 역적으로 몰려서 제주도로 도망왔다. 피난지를 제주도로 정한 것은 細花里堂에 아름다운 女神 백주또가 있음을 알고, 세상에 퍼지 못한 기세를 이 女神과 결혼하여 달래자는 데 있다. 그는 제주도에 도착하자, 곧 細花里堂을 찾아가 천조또에게 「백주또와 천정배 필이 되기로 찾아왔습니다。」라고 사연을 말했다. 그러자, 천조또는 「그러면 너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그 食性부터 물었다. 「술도 장군, 떡도 장군, 밥도 장군, 돼지도 전 마리로 먹습니다。」고 하자, 「투, 더럽다. 어서 나가거라. 우리는 손으로 벤 음식은 손 냄새 나서 못 먹고, 칼로 벤 음식은 쇠 냄새 나서 못 먹고, 실로 밟아 끊은 청과나, 말 발톱 같은 백돌래(떡이름)나, 얼음 같은 백시루나 늦그릇의 멧밥이나, 淸甘酒, 무우채, 계란 안주나 먹는다. 우리와 같이 좌정 못하겠다. 나가거라.」 이렇게 거절했다. 금상님은 어쩔 수 없이 고기와 술을 끊을 것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다.

그런데, 금상님은 육식을 금하고서 몇 달이 지나가자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갔다. 백주또는 남편의 목숨 살리기 위해, 큰 돼지를 기르는 집에 흉험을 주어 돛제(豚祭)를 하도록 알렸다. 이로부터 금상님은 돛제를 받아들게 되었는데, 돼지를 잡으면 먼저 털·피·발톱을 받아 먹고, 고기를 삶으면 그 고

기를 전 마리 받아먹게 되었다. 이렇게 고기를 먹은 후, 금상님은 소주로 목욕하고, 청감주로 양치질하여 깨끗이 하고서 천주도와 백주도와 같이 좌정한다.³⁾

이 본풀이는 맑은 음식(米穀祭物)을 먹는 神과 肉食을 하는 神의 對立을 말해준다. 肉食을 不淨한 것으로 치고 米食을 清潔한 것으로 치는 관념이 드러나 있고, 또 肉食神은 下位, 米食神은 上位라는 位階意識도 보인다.

위의 두 이야기는 肉食을 하는 男神의 이야기인데, 女神도 肉食을 하는 이야기가 있다.

3) 舊左邑 月汀里 本鄉堂 본

月汀里 本鄉堂에는 신산국(男)과 서당할마님(女)이라는 夫婦神이 모셔지고 있다. 서당할마님은 본래 황토고을 황정승의 딸인데, 돌함에 담아 띄워 버리므로 제주도에서 표착하여 신산국을 만나 부부가 된 것이다.

부부신은 일곱 아기를 낳고 살아간다. 어느날 서당할마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의 환갑잔치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이 몹시 말랐다. 사방을 둘러보니, 돼지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물을 먹으려고 엎드리고서 물을 빨아 먹는데, 돼지털이 코를 찔렀으므로 그것을 그을려서 먹으니 마치 돼지고기를 먹은 듯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어째서 돼지고기 냄새가 나느냐?」고 한다. 「돼지털을 그을려서 먹은 일밖에 없습니다.」 「더럽다. 양반의 부인노릇 못하겠다. 살림을 갈릴 것이로되 자식이 있어 아주 갈리지는 못하고 따로 살자. <서당머채>로 가라.」고 하여 처와 자식들은 갈려 나와 별거하게 되었다. 쫓겨난 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단골(信仰民)들에게 두통·설사·구토 등 흥험을 주었다. 단골들이 점을 쳐 보니, 서당할마님의 조화이므로 dot제(豚祭)를 하라는 알림이 있었다. 그 때부터 돼지 한 마리씩 잡아 dot제를 하며 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위하면 두통·설사·구토 등 흥험을 가두어 낫게 해 준다.⁴⁾

3)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口誦 要約.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661-676.

4) 舊左邑 杏源里 男巫 李仲春 口誦 要約.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649-655.

4) 表善面 兎山里 이렛당 본

兎山里 이렛당의 妻神은 본래 동해용왕의 막내딸이다. 시집와서 얼마없어 들판을 돌아다니는데, 목이 몹시 말랐다. 주위를 둘러보니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이 보였다. 엎드리고서 그 물을 빨아 먹는데, 돼지털 하나가 코를 찔렀다. 돼지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어째서 부정한 돼지고기 냄새가 나느냐?」고 야단치며 부인을 馬羅島로 귀양 보내 버렸다. 그 후, 이 神은 마라도에서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살다가 구제되어 兎山里로 돌아와 堂神이 되었다. 이 神에게는 초이래, 열이래, 스무이렛날에 돼지고기를 올려 위하면 안질, 설사, 음, 허물 등을 낫게 해 주고 야기를 잘 키워 준다.⁵⁾

이 두 본풀이는 女神이 돼지털을 불태워 먹는 등 최소한의 肉食을 하고 쫓겨나, 안질, 설사, 피부병 등의 治病神이 되었다는 점이 공통된다. 역시 肉食은 不淨하고, 肉食神은 下位神이라는 관념이 보인다.

III

위에서 네 개의 事例를 보았는데, 이러한 본풀이는 全島的으로 점점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류의 전승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요약하여 지적해 두는 데 그치기로 한다.

- ① 濟州島 巫俗의 神들은 米食神과 肉食神으로 나누어지는 점.
- ② 米食神과 肉食神은 男女에 다 있는데, 相互對立的 地位에 있어서, 米食神을 清潔, 上位의 神으로 하고, 肉食神을 不淨, 下位의 神으로 치고 있는 점.
- ③ 男神의 肉食神은 수렵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英雄神이고, 女神의 肉食神은 설사, 眼疾, 피부병 등의 治病神인 점.

5) 表善面 細花里 男巫 愼明玉 口誦 要約.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p. 706-712.

여기에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神들을 米食神과 肉食神으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對立的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神들의 祭物은 人間의 음식물의 投影이고, 옛날의 貴重한 食料의 殘映이라고 보면, 祭物은 古代的 生産經濟와 연관된다. 肉食의 神은 고기를 高級食品視하는 生活文化를, 米食의 神은 쌀을 高級食品視하는 生活文化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民族學的인 검토 없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祭物과 神은 각각 수렵 내지 牧畜文化와 農耕文化의 所産인지도 모른다. 만일 이런 發想이 옳은 것이라면, 그 背景의 文化複合을 지적 못한다 해도, 米食神과 肉食神이 併存은 다른 두 개의 文化의 習습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米食의 神을 清潔·上位의 神으로 치는 것은 그 背景文化의 優越性을 말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